

## 어머니·여고생·가정 관련 변인과 어머니-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과의 관계

이 상 길                      김 충 기\*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어머니의 학력·여고생의 학업성취도·가정생활수준·여고생의 생활만족도·여고생의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가 어머니-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서울지역 일반계 여고생을 층화군집표집에 의해 선발하여 최종 501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촉진적 의사소통 질문지는 Carkhuff(1967)의 척도를 기초로 마정건(1988)이 제작한 것을 내용타당도와 구인타당도를 통해 재편집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독립변인 모두가 어머니-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여고생이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고 여고생이 가정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여고생이 어머니 취업여부를 만족스럽게 지각할수록, 여고생은 어머니가 여고생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존중을 전달하며, 구체적인 명료한 표현을 통해 자녀의 자기 탐색을 촉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 학업성취도, 생활수준, 생활만족도, 어머니의 취업여부, 촉진적 의사소통

---

이상길은 성동고등학교에, 김충기는 건국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김 충 기, (143-701)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전화 : 02-450-3847 E-mail : choongki@konkuk.ac.kr

가정의 환경적 요인으로서 물적 요인과 인적 요인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의 하나는 물적 요인보다 인적 요인이 더욱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가정환경의 인적 요인 중에서도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부모는 자녀들이 상당한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며, 이 모델링의 상당부분은 부모-자녀간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부모-자녀관계 중 특히 어머니-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로서 그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도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녀에게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조력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동성의 어머니와 딸은 밀접한 상호작용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어머니와 청소년기 여고생 자녀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여고생 자녀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어떤 조력적 인간관계를 경험하느냐는 것은 여고생 자녀의 체 성장·발달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고생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근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인간적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필요로 하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가정의 교육환경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facilitative communication)이란 원래 상담이론학자들이 상담에서 또는 조력(helping)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유형을 개념화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따라서 상담이론학자들이 사용하고 의미하는 촉진적 의사소통에 대해 살펴보면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를 증대시키고 반면에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를 감소 내지 제거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인간적 만남을 전제로 한다(변영인, 1999). 촉진적 의사소통은 조력과정에서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 해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잠재 능력까지도 성장 발달시키려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특히 교육적 대화·상담, 치료적 의사소통 등 여러 측면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마정건, 1988).

기존 연구에서 설정한 촉진적 의사소통의 변인들을 살펴보면, Rogers(1961)는 촉진적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핵심적 인간관계의 변인으로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 등 3가지 변인을 들었다. 그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하고 자녀가 그것을 왜곡 없이 지각하는 것이 자녀의 인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하였다. Carkhuff, Truax와 Bernson(1967)은 기존의 상담이론과 기법을 분석, 검토하여 Rogers의 세 핵심변인 외에 구체성, 직면, 자기 공개, 즉시성 등을 조력관계에서 인성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인간관계 변인으로 제시하여 촉진적 인간관계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밝힌 하위변인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여고생 자녀간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는 자녀의 내면적 감정, 사고를 정확히 지각하여 이를 왜곡없이 충분히 표현하고,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에 대하여 대단히 깊은 존중과 관심을 표현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존중하여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에 관한 극히 사적인 정보까지도 아무 거리낌없이 자녀에게 공개하여 자녀와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에 수용적 깊은 관심을 갖고 자녀의 표현에 매우 직접적이고 명료한 반응을 보여 자녀의 깊은 수준의 자기 탐색을 촉진하는 것을, 본 연구는 어머니와 여고생간의 촉진적 의사소통이라고 정의한다.

축진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녀의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생활수준, 생활만족도, 어머니 취업여부 등이 직·간접적으로 다루어졌다. 우선 청소년기 아들보다 딸이 어머니와 더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옥숙, 2001; 변영인, 1999; 이경주, 신효식, 1990). 이 외의 주요 변인들과 축진적 의사소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많은 연구가 어머니 교육수준이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개방적이고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하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대화만족도가 높다고 했다(김순옥, 1990; 방문희, 1991; 이경주, 신효식, 1990; 이금, 1993; 이정순, 1994). 그러나 한편으로 어머니의 학력은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더 일방통행식 의사소통을 한다는 결과도 있다(김정희, 1987; 황순규, 1998).

Lanza-Kaduce와 Webb(1992)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통제, 지지, 참여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리고 임은미(1991)는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변영인(1999)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은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주윤웅(2000)은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취동기가 높다고 했으며, Deslanders(2000)는 부모와 청소년간 적절한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발성과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변영인(1999)은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상관 관계가 없다고 했

고, 서향두(2001)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과정에서 긍정적 피드백의 제공 정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영숙(2001)은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어머니와 자녀는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가정형편이 부유할수록 어머니와 자녀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상류계층 어머니들이 자녀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밝혔다(권혜진, 1993; 김양숙, 1995; 이순형, 1992; 최선남, 1990). 그러나 가정의 소득수준과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발견된다(김진숙, 1983).

가정에서의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가정 생활에서 얻고 있는 만족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기영, 이수진, 2001). 본 연구에서 여고생의 생활만족도는 현재의 가족의 문화적 풍토·가정의 분위기·가정의 경제수준·부모에 대한 만족 등에 대한 포괄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Marta(1997)는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와 부모-청소년 자녀간 적절한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인 위험 노출여부와 상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Kahlbaugh, Lefkowitz, Valdez와 Sigman(1997)은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어머니의 독점적 지배성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자녀는 당혹감과 경멸감을 드러냈고 어머니와의 유착감이 감소했는데, 유착감의 감소는 가족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Reed와 Dubow(1997)는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어머니-청소년 자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는 가정의 분위기나 부모에 대한 만족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오남과 김정신(1994)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할수록 청소년 자녀는 생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했다. 반면 촉진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바람직한 인성형성이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다(이상수, 2001; 최홍규, 2000). 보다 직접적으로 최규련(1998)은 가정 생활 만족도와 개방적 의사소통은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은 양립적이다. 어떤 연구자는 어머니 취업이 청소년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어떤 결론은 그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다(Abbott, 1991). 먼저 어머니의 취업이나 일에 대한 만족도가 자녀에게 성취 지향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있다(김경숙, 1997; 최성임, 1998; 최수연, 1997; Rivera, 1997). 반면에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거나(Abbott, 1991; Paulson, 1996; Paulson & Slavin, 1991),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Abruzzese & Chambliss, 1993; York, 1994)는 연구들도 있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 유무보다는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나 만족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목된다. Belsky, Cernek과 Spanier(1984)는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집에 있어야 그 역할을 다한다고 여기거나, 또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갖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따라서 어머니가 직업을 갖거나 안 갖거나 관계없이 그 상태를 만족해하며 자녀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할 때 긍정적 결과를 얻는다(이수정, 1993)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만족도와 어머니·여고생의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와 여고생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적 의사소통을 통해 평가하고,

그것이 어머니·여고생·가정 관련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어머니의 학력, 여고생의 학업성취도, 가정의 생활수준, 여고생의 생활만족도,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여고생의 만족도 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어머니·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여고생·가정 관련 변인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인과관계라기보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어머니·여고생·가정 관련 변인이 어머니·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하여 양자간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여고생을 대상으로 층화군집표집을 하였다. 서울지역을 11개 지역 교육청으로 구분한 다음, 각 11개 교육청별로 소속된 여자고교 및 남녀공학고교 중 무선적으로 각기 1~2개 학교씩을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년과 학급을 무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지역 교육청별 여고생수를 고려하여 총 13개교에 670부를 배부하고 585부를 회수하여 약 87.3%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면서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실제 통계 분석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501부로서 회수된 설문지의 85.6%가 연구의 최종 대상이다.

### 측정 도구

#### 어머니와 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 질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와 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 질문지는 Carkhuff(1967)의 축진적 의사소통 척도를 기초로 마정건(1988)이 제작하고 변영인(1999)이 보완한 것을 참조하였다. 시대적 변화상을 감안하여 여고생에게 적합하도록 교육심리 전문가와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국어국문학 전문가들에게 내용타당도를 의뢰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래의 49개 문항의 질문지는 25개 문항으로 축소되었으며 문항내용 및 문항별 척도수준도 대폭 수정되었다.

본 검사에서 회수된 질문지를 대상으로 구인타당도를 산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 communality(공유치)가 .40 미만의 문항 6개를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19개 문항이 본 연구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추출된 요인을 개방성, 긍정적 존중, 수용성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 사용된 질문지의 문항 내적 신뢰도(Cronbach- $\alpha$ )는 축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 별로 개방성은 .689이고, 긍정적 존중은 .640이고, 수용성은 .687이었고 전체적으로 .83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마다 가상적 자극 상황을 설정하고 자녀의 질문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Carkhuff가 제안한 기준에 근거하여 1수준(가장 낮은 의사소통 수준)에서부터 5수준(가장 높은 의사소통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축진적 의사소통의 하위변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방성: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존중하여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에 관한 극히 사적인 정보까지도 아무 거리낌없이 자녀에게 공개한다. 이를 통하여 어머니는 자녀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자기탐색을 촉진하게 된다(3, 6, 9, 15, 16, 17번 문항).

(2) 긍정적 존중: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에 대하여 대단히 깊은 존중과 관심을 표현한다. 어머니는 자녀가 표현한 것을 넘어서 자녀의 인간적 가치에 몰입되어 의사소통한다(1, 2, 5, 7, 8, 11번 문항).

(3) 수용성: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에 깊은 수용적 관심을 갖고 자녀의 표현에 매우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내용은 대단히 직접적이고 명료하여 자녀의 깊은 수준의 자기탐색을 촉진한다. 어머니는 자녀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백한 해석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으므로 부모가 자신을 수용해 주고 있다고 깊게 느낀다(4, 10, 12, 13, 14, 18, 19번 문항).

### 가정환경배경 설문지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어머니·여고생·가정 관련 변인(어머니의 학력, 여고생의 학업성취도, 가정의 생활수준, 여고생의 생활만족도,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여고생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가정환경배경 설문지 속에 포함시켰다. 각각의 독립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어머니의 학력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등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여고생의 학업성취도를 하(하위30%), 중, 상(상위10%) 등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생활수준을 소득 정도에 따라 하, 중, 상으로 구분하였다. 여고생이 지각한 생활만족도는 매우불만에서 매우만족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불만에서 매우만족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무응답을 비롯한 어머니 사망이나 이혼 등에 대해서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표 1. 어머니·여고생·가정 관련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어머니학력	빈도(명)	%	학업성취도	빈도(명)	%	생활수준	빈도(명)	%
중졸이하	50	10.0	하	88	17.6	하	68	13.6
고졸	305	60.9	중	315	62.9	중	409	81.6
대졸이상	142	28.3	상	89	17.8	상	20	4.0
결측값	4	.8	결측값	9	1.8	결측값	4	.8
합계	501	100.0	합계	501	100.0	합계	501	100.0

  

생활만족도	빈도(명)	%	취업여부만족도	빈도(명)	%
매우불만	18	3.6	매우불만	5	1.0
불만	80	16.0	불만	62	12.4
반반	201	40.1	만족	326	65.1
만족	182	36.3	매우만족	86	17.2
매우만족	18	3.6	결측	22	4.4
결측	2	.4	결측	22	4.4
합계	501	100.0	합계	501	100.0

결 과

어머니·여고생·가정 관련 변인이 여고생-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전체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 2에 의하면 여고생-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전체합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 학력, 여고생의 학업성취도, 가정의 생활수준, 여고생의 생활만족도,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여고생의 만족도를 투입방법으로 입력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F(5, 495) = 17.397$  이고  $p < .001$ 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R^2$ 값은 .149로서 독립변인들의 촉진적 의사소통 전체합에 대한 전체 설명력이 14.9%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 중에서 어머니 학력( $t = 2.236, p < .05$ ), 여고생의 학업성취도( $t = 2.219, p < .05$ ), 생활수준( $t = 2.219, p < .05$ ), 생활만족도( $t = 5.107, p < .001$ ),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여고생의 만족도( $t = 3.173, p < .01$ ) 모두가 여고생-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전체합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 볼 수 있는 지표인 표준화 계수  $\beta$ 계수를 보면 생활만족도(.225)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표준화 계수  $B$ 를 바탕으로 회귀동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촉진적의사소통 전체합} = 27.314 + 1.839(\text{어머니학력}) + 1.849(\text{학업성취도}) + 2.665(\text{생활수준}) + 2.906(\text{생활만족도}) + 2.640(\text{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

어머니·여고생·가정 관련 변인이 여고생-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개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 3에 의하면 여고생-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개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 학력, 여고생의 학업성취도, 가정의 생활수준, 여고생의 생활만족도,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여고생의

표 2. 어머니·여고생·가정 관련 변인과 여고생-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전체할

N = 501	M	SD	Pearson's r				
			의사소통	학력	학업성취	생활수준	생활만족
축진적 의사소통 전체	57.42	11.35					
어머니의 학력	2.19	.59	.165***				
학업성취도	2.00	.59	.199***	.224***			
생활수준	1.90	.41	.193***	.139**	.124**		
생활만족도	3.20	.88	.303***	.096*	.225***	.245***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	3.03	.58	.207***	.092*	.133**	.122**	.172***

  

Durbin-Watson=1.954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F (5, 495)	R <sup>2</sup>
	B	SE	β	t		
상수	27.314	3.565		7.661***		
어머니학력	1.839	.822	.096	2.236*		
학업성취도	1.849	.833	.097	2.219*	17.397***	.149
생활수준	2.665	1.201	.096	2.219*		
생활만족도	2.906	.569	.225	5.107***		
어머니취업여부	2.640	.832	.135	3.173**		

주. \*  $p < .05$  \*\*  $p < .01$  \*\*\*  $p < .001$

만족도를 투입방법으로 입력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F(5, 495) = 11.661$  이고  $p < .001$ 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R^2$ 값은 .105로서 독립변인들의 축진적 의사소통 개방성에 대한 전체 설명력이 10.5%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 중에서 여고생의 학업성취도( $t = 2.511, p < .05$ ), 생활수준( $t = 2.261, p < .05$ ), 생활만족도( $t = 3.434, p < .01$ ),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여고생의 만족도( $t = 2.529, p < .05$ )는 여고생-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개방성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 학력( $t = 1.795, p = .073$ )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 볼 수 있는 지표인 표준화 계수  $\beta$ 를 보면 생활만족도(.155)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표준화 계수 B를 바탕으로 회귀동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축진적의사소통 개방성} = 6.327 + .854(\text{학업성취도}) + 1.109(\text{생활수준}) + .798(\text{생활만족도}) + .859(\text{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

어머니·여고생·가정 관련 변인이 여고생-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긍정적 존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 4에 의하면 여고생-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

표 3. 어머니·여고생·가정 관련 변인과 여고생-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개방성

N = 501	M	SD	Pearson' r				
			개방성	학력	학업성취	생활수준	생활만족
축진적 의사소통 개방성	16.62	4.52					
어머니의 학력	2.19	.59	.143***				
학업성취도	2.00	.59	.192***	.224***			
생활수준	1.90	.41	.177***	.139**	.124**		
생활만족도	3.20	.88	.231***	.096*	.225***	.245***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	3.03	.58	.171***	.092*	.133**	.122**	.172***

  

Durbin-Watson=1.958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F (5, 495)	R <sup>2</sup>
	B	SE	$\beta$	t		
상수	6.327	1.456		4.346***		
어머니학력	.603	.336	.079	1.795		
학업성취도	.854	.340	.113	2.511*	11.661***	.105
생활수준	1.109	.490	.100	2.261*		
생활만족도	.798	.232	.155	3.434**		
어머니취업여부	.859	.340	.110	2.529*		

주. \*  $p < .05$  \*\*  $p < .01$  \*\*\*  $p < .001$

통 긍정적 존중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 학력, 여고생의 학업성취도, 가정의 생활수준, 여고생의 생활만족도,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여고생의 만족도를 투입방법으로 입력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F(5, 495) = 9.077$  이고  $p < .001$ 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R^2$ 값은 .084로서 독립변인들의 축진적 의사소통 긍정적 존중에 대한 전체 설명력이 8.4%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 중에서 생활만족도( $t = 4.386, p < .001$ ),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여고생의 만족도( $t = 2.641, p < .01$ )는 여고생-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긍정적 존중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 학력( $t = 4.21, p = .674$ ), 여고생의 학업성취도( $t = 1.309, p = .191$ ), 생활수준( $t = 1.091, p = .276$ )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 볼 수 있는 지표인 표준화 계수  $\beta$ 를 보면 생활만족도(.200)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표준화 계수 B를 바탕으로 회귀동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축진적의사소통 긍정적존중} = 10.931 + .996(\text{생활만족도}) + .877(\text{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



표 4 어머니 · 여고생 · 가정 관련 변인과 여고생-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긍정적 존중

N = 501	M	SD	Pearson' r				
			긍정적존중	학력	학업성취	생활수준	생활만족
의사소통 긍정적 존중	18.95	4.36					
어머니의 학력	2.19	.59	.069				
학업성취도	2.00	.59	.130**	.224***			
생활수준	1.90	.41	.122**	.139**	.124**		
생활만족도	3.20	.88	.248***	.096*	.225***	.245***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	3.03	.58	.167***	.092*	.133**	.133**	.172***
Durbin-Watson=1.957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F (5, 495)	R <sup>2</sup>	
	B	SE	$\beta$	t			
상수	10.931	1.423		7.684***			
어머니학력	.138	.328	.019	.421			
학업성취도	.435	.333	.059	1.309	9.077***	.084	
생활수준	.523	.479	.049	1.091			
생활만족도	.996	.227	.200	4.386***			
어머니취업여부	.877	.332	.116	2.641**			

주.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 · 여고생 · 가정 관련 변인이 여고생-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 5에 의하면 여고생-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수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 학력, 여고생의 학업성취도, 가정의 생활수준, 여고생의 생활만족도,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여고생의 만족도를 투입방법으로 입력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F(5, 495) = 14.299$  이고  $p < .001$ 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R^2$ 값은 .126으로서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인 축진적 의사소통 수용성 대한 설명력이 12.6%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 중에서 어머니의 학력( $t = 3.088, p < .01$ ), 생활수준( $t = 1.991, p < .05$ ), 생활만족도( $t$

$= 4.524, p < .001$ ),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여고생의 만족도( $t = 2.513, p < .05$ )는 여고생-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수용성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고생의 학업성취도( $t = 1.553, p = .121$ )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 볼 수 있는 지표인 표준화 계수  $\beta$ 를 보면 생활만족도(.202)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표준화 계수 B를 바탕으로 회귀등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축진적의사소통 수용성} = 10.056 + 1.098(\text{어머니 학력}) + 1.034(\text{생활수준}) + 1.113(\text{생활만족도}) + .904(\text{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

표 5. 어머니·여고생·가정 관련 변인과 여고생-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용성

N = 501	M	SD	Pearson' r				
			수용성	학력	학업성취	생활수준	생활만족
촉진적 의사소통 수용성	21.85	4.84					
어머니의 학력	2.19	.59	.191***				
학업성취도	2.00	.59	.170***	.224***			
생활수준	1.90	.41	.177***	.139**	.124**		
생활만족도	3.20	.88	.270***	.096*	.225***	.245***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	3.03	.58	.175***	.092*	.133**	.122**	.172***

  

Durbin-Watson=1.966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F (5, 495)	R <sup>2</sup>
	B	SE	β	t		
상수	10.056	1.541		6.525***		
어머니학력	1.098	.355	.134	3.088**		
학업성취도	.560	.360	.069	1.553	14.299***	.126
생활수준	1.034	.519	.087	1.991*		
생활만족도	1.113	.246	.202	4.524***		
어머니취업여부	.904	.360	.108	2.513*		

주. \* p < .05 \*\* p < .01 \*\*\* p < .001

###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전체적으로 어머니·여고생·가정 관련 변인(어머니의 학력, 여고생의 학업성취도, 가정의 생활수준, 여고생의 생활만족도,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여고생의 만족도 등) 모두가 어머니·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독립변수 중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만 부분적으로 촉진적 의사소통 개방성에 대해서 어머니의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존중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학력·학업성취도·생활수준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성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유의미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방문희, 1991; 이금, 1993; 이정순, 1994)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며,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변영인, 1999; 임은미, 1991; Lanza-Kaduce & Webb, 1992)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권혜진, 1993; 김양숙, 1995; 이순형, 1992; 이영숙, 2001; 최선남, 1990)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리고 어머니-자녀간 긍정적이고 적절한 의사

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위험노출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Marra, 1997) 결과와, 가정에 대해 만족할수록 부모와 긍정적 의사소통을 한다는(김양숙, 1995; 최규련, 1998) 결과를 통해 축진적 의사소통과 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직업을 갖거나 갖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그 상태를 만족해 하며 자녀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할 때는 긍정적 결과를 얻는다(이수정, 1993; Belsky et al., 1984)는 연구는 축진적 의사소통과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여고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가정의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여고생이 가정생활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취업모든 전업주부이든 어머니의 현상태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일수록, 여고생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 즉, 여고생 자녀가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솔직한 신뢰감을 느끼며, 어머니로부터 깊은 관심과 존중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하며, 어머니의 대화가 여고생의 자기탐색을 촉진하는 구체적이고 명료한 것으로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의 기본적으로 사회·문화·경제적 배경이 증진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결속력 있는 화목한 가정분위기를 조성하여 여고생 자녀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깊은 만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면을 시사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추후의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학력이 높은 어머니가 오히려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 경험에 관한 자녀와의 공유가 부족하거나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둘째, 학업

성취도가 높은 여고생이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에 인습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무시하거나 자녀의 표현에 대하여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다고 지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일반계 여고생이 입시경쟁 시 달려면서 어머니의 대화를 일방적인 직언과 훈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생활수준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가 오히려 자녀에 대한 존중과 긍정적 관심이 결여될 수도 있다. 이것은 부모가 높은 소득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오히려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위한 시간과 여유를 상실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권혜진 (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 (1997). 주부취업이 가족과 자신의 생활에 미친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 (1990). 10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귀인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양숙 (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 김경신 (1994). 어머니와 청소년의 의사소통 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105-120.
- 김옥숙 (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 중·고교남녀 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1983).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정건 (1988).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 특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문희 (199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영인 (1999).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가족 적응성 및 가족응집성과 자녀의 학업성취.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향두 (2001). 의사소통과정에서의 긍정적 피드백이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신효식 (1990). 청년기 자녀의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13.
- 이기영, 이수진 (2001).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가정 및 직장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3), 47-66.
- 이금 (1993).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만족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수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 반발심 및 문제행동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1993). 여고생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형 (1992). 모·자녀간 상호 유통과 아동의 감정 조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 (1994).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아동우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 (1991). 고교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순규 (199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운용 (2000).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지능 및 성취동기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 (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지, 3(1), 120-142.
- 최선남 (1990). 소년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임 (1998). 어머니의 취업과 일만족이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연 (1997). 어머니의 취업유무 및 일의 만족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의 관계.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홍규 (2000). 아버지와 자녀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bott, B. L. (1991). Maternal employment and

- adolescent girls.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April.
- Abruzzese, M., & Chambliss, C. (1993). *Adult daughters of working mothers: Supermom juniors?* EDRS(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ED358403.
- Belsky, J., Cernek, R. M., & Spanier, G. B. (1984). *The child in the family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Carkhuff, R. R. (1967).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of facilitative interpersonal proces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4, 67-72.
- Carkhuff, R. R., Truax, & Bernson, B. G. (1967). *Beyond Counseling and Therap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 Deslandes, R. (2000). Direction of influence between parenting style and parental involvement in schooling practices, and students' autonomy: A short-term longitudinal design.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A, April.
- Kahlbaugh, P., Lefkowitz, E. S., Valdez, P., & Sigman, M. (1997). The affective nature of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concerning sexuality and confli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7(2), 221-239.
- Lanza-Kaduce, L., & Webb, L. M. (1992). Perceived parental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Predictors of academic performance and drop-out rates. *ACA Bulletin*, 82, 1-12.
- Marta, E. (1997). Parent-adolescent interactions and psycho-social risk in adolescent: An analysis of communication, support and gender. *Journal of Adolescence*, 20(5), 473-487.
- Paulson, S. E. (1996). Maternal employment and adolescent achievement revisited: An ecological perspective. *Family Relations*, 45(2), 201-208.
- Paulson, S. E., & Slavin, L. A. (1991). Maternal employment and adolescent achievement: Effects of demandingness, responsiveness, and commitment to achievemen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April.
- Reed, J. S., Dubow, E. F. (1997). Cognitive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communication in clinic-referred and nonclinical mother-adolescent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1), 91-102.
- Rivera, M. (1997). Maternal factors affecting the academic achievement of latino adolescents.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NCFR Fatherhood and Motherhood in a Diverse and Changing World*, 59th, Arlington: VA, November.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Co.
- York, M. (1994). *Self-esteem of children in fourth through sixth grades with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Master of Science thesis, Fort Hays State University.

원고접수일 : 2002. 6. 16  
수정원고접수일 : 2002. 8. 23  
게재결정일 : 2002. 9. 7

# The Influence of Variables Related Mother, Daughter, & Household on Mother-High School Girl's Facilitative Communication

Sang-kil Lee

Choong-ki Kim

Kon-kuk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mother's scholarship, daughter's academic achievement, standard of household living, daughter's perceived satisfaction of her life, daughter's perceived satisfaction of mother's working and non-working on mother-high school girl's facilitative communication. Cluster sampling with stratification was conducted among high school girls in Seoul. A total of 670 questionnaire sheets were administered to 13 high schools for girls in December 2001. Only 501 sheet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using SPSS 10.0 material analysis. The questionnaire of mother-daughter facilitative communication was based on Carkhuff's(1967) and Ma's(1988) inventory, it was revised through content validity & construct validity. In general, the results turned out that all independent variables have meaningful influence on mother-high school girl's facilitative communication. Therefore, the higher mother's scholarship is; the higher daughter's academic achievement is; the higher the standard of household living is; the higher daughter's perceived satisfaction of her life is; the higher daughter's perceived satisfaction of mother's working and non-working is, the more open; the more respectful; the more acceptable communication between mother and high school girl is.

*Key Words : academic achievement, standard of household living, satisfaction of one's own life, satisfaction of mother's working and non-working, facilitative communication*

## 부 록

### 축진적 의사소통 질문지

1. 엄마는 너무하세요. 남(여)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그렇게 끊어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 1) 내가 지금 남(여)자 친구 만날 때니?
  - 2) 기분은 바쁘겠지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 3) 전화를 못 받게 해서 화가 난 모양이구나.
  - 4) 전화를 못 받아서 화가 나고 친구한테 미안한 생각도 드는 모양이구나.
  - 5) 엄마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네 입장을 존중해 주길 바라는구나.
2. 친구들과하고 바닷가로 캠핑 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꼭 보내주셔야 해요.
  - 1) 넌 매일 놀 궁리만 하니? 공부는 언제 하려고.
  - 2) 가고는 싶겠지만 학생들이 무슨 캠핑이야.
  - 3) 이번엔 캠핑을 꼭 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 4) 친구들도 사귄 걸 꼭 가고 싶은데 안 보내 줄까 봐 걱정이 되는 모양이구나.
  - 5) 기분도 전환하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 겸해서 이번엔 꼭 가고 싶은가 보구나.
3. 날씨가 더워서 짜증만 나고 공부가 잘 안돼요. 많이 해야 할 텐데요.
  - 1) 넌 땀도 많다. 공부하는데 날씨가 무슨 상관이나.
  - 2) 좀 덥더라도 참고해. 넌 끈기가 부족해서 걱정이야.
  - 3) 더운데 공부하느냐고 애 많이 쓰는구나.
  - 4) 더울 때에는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 5) 좀 쉬려무나.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공부가 더 잘될 수도 있을 거야.
4. 고등학교에 가니깐 정말 정신차릴 수가 없어요. 과목수도 많고 수업 시간도 늘고 숙제도 많고 참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무섭고요.
  - 1) 고등학교는 뭐 거저 먹는 줄 아니? 넌 중학교 때 너무 편했어.
  - 2) 힘들어도 어떡하겠냐, 고생 좀 해.
  - 3) 고등학교 가니까 분량이 많아서 힘이 드는 모양이구나.
  - 4) 처음에는 힘들어도 넌 의지와 능력이 있어 잘 적용할 수 있을 거야.
  - 5) 넌 잘 이겨내서 언젠가는 기대 이상으로 네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거야.
5. 저 이번 일요일 친구하고 방송국에 가기로 했는데요. 괜찮겠죠? 이번 공연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 1) 넌 생각이 있니 없니? 다음주에 시험 본다면서 어째 그 모양이지?
  - 2) 학생이 공부는 안하고 방송국 구경이나 다니면 뭐가 되겠니?
  - 3) 방송국 구경은 가더라도 공부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지.
  - 4) 요새 갑갑하니? 머리도 식힐 겸 갔다 오려무나.
  - 5) 갔다 오려무나.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끔 친구들과 어울리고 스트레스도 풀어야지.

6. 엄마 돈 좀 주세요. “돈·돈” 하니깐 짜증나시죠? (예상외로 지출이 많아져서 어머니가 의아해 하셨던 경험을 생각해서 답하시오)

- 1) 학생이 무슨 돈이나? 왜 그렇게 해프냐?
- 2) 돈 쓸 일이 뭔지 몰라도 넌 맨 날 돈 타낼 궁리만 하는 것 같아.
- 3) 또 돈 쓸 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 4) 돈 쓸 일이야 언제나 있겠지만 내가 요즘 씹씹이가 해픈 듯하여 걱정이구나.
- 5) 네가 돈을 규모 있게 쓰리라 믿고 있지만 요즘 어떤지 약간 걱정이 되는구나.

7. 제 거짓말 때문에 어머니가 화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어머니가 화가 나셨다는 가정 하에 답하시오).

- 1) 넌 걸핏하면 거짓말이지?
- 2) 다 큰 애가 그렇게 거짓말하면 못쓰는 법이다.
- 3) 그래 엄마 지금 화 좀 났다.
- 4) 이유야 어떻든 자식이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는구나.
- 5) 네 사정은 이해하지만 솔직히 화가 나는구나. 엄마랑 솔직하게 의논했으면 더 좋았을 걸.

8. 오늘 수업 끝나고 친구랑 영화 보러 갔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표 두 장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왔어요 (내가 공부에 소홀해질까봐 걱정하셨다는 가정 하에 답하시오).

- 1) 넌 못된 친구 께임에 넘어가니? 학생이 무슨 영화나?
- 2) 영화 같은 것 보지 말고 정신차리고 공부나 해.
- 3) 친구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걱정이구나.
- 4)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오늘 할 공부를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구나.
- 5)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은 시간에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구나.

9. 오늘 이 옷 입는다고 했잖아요. 안 빨아 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머니께 믿고 부탁했던 일을 해 놓으시지 않아서 당황했던 상황을 가정해서 답하시오).

- 1) 옷 하루 더 입으면 큰일 나니? 넌 맨 날 옷가지고 성화나?
- 2) 보면 모르니? 내가 종일 놀고 안 빨 줄 아니?
- 3) 아유 나도 힘들어 죽겠다. 그럴 때도 있지. 그 옷 하루만 더 입어.
- 4) 네가 그러니 엄마 기분이 언짢구나. 엄마 사정도 이해해 주어야지.
- 5) 엄마 마음도 편치 않아. 오늘만 그냥 입고 가면 고맙겠구나.

10. 다른 사람 (형제, 친척, 친구)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요.

- 1) 넌 항상 그 아이 (형제, 친척, 친구)에게 못하니까 그렇지.
- 2) 너도 그 아이 (형제, 친척, 친구)처럼 열심히 해봐.
- 3) 그 아이 (형제, 친척, 친구)가 너보다 더 나오면 기분이 나쁜가 보구나.
- 4) 그 아이 (형제, 친척, 친구)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단 말이지?
- 5) 훌륭한 그 아이 (형제, 친척, 친구)를 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비교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는 말이구나.



11. 전 중학교 때는 공부를 참 잘했는데 고등학교에 오니까 공부가 잘 안돼요 아무래도 제 머리가 나쁜가봐요.

- 1) 너 정말 머리가 나빠졌구나.
- 2) 너도 한 때는 공부를 잘했지.
- 3) 요즘 공부가 쉽게 잘 안되나 보구나.
- 4) 공부가 잘 안될 때도 있지. 그렇다고 머리가 나빠진 것은 아니지.
- 5)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으니깐 네 머리는 분명히 좋은 거야. 실망하지 말고 좀 더 노력해봐.

12. 호감이 많이 가는 친구일수록 접근하기가 곤란해요.

- 1) 별 싱거운 말을 다 들겠구나.
- 2) 본 받을게 있는 친구라면 일단 사귀어 보도록 해.
- 3) 호감이 가는 친구일수록 접근하기가 더 곤란하단 말이지?
- 4) 호감 가는 친구일수록 네 태도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두려운 모양이구나.
- 5) 그런 친구가 있어 사귀고 싶으면 엄마와 같이 그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자.

13. 엄마, 학생 때 연애해 본 적 있으세요? (어머니가 학생시절에 누군가를 좋아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는 가정 하에 답하시오)

- 1) 쓸데없이 별것 다 묻는구나.
- 2) 엄마는 정숙한 모범생이었던단다.
- 3) 특별한 경험은 아니었던단다.
- 4) 조금 좋아하던 사람이야 있었지.
- 5) 그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감정이지.

14. 엄마는 다른 사람 홍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도 다른 사람을 홍보신 경험이 있다는 가정 하에 답하시오)

- 1)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 2) 엄마가 남의 흥을 보든 안보든 네가 알 바 아니다.
- 3) 세상에 흥 안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 4) 그러면 못쓴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못된 사람을 보면 참기가 힘들어서 흥을 보게 되지.
- 5) 남을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흥을 보고 마음을 털어 내버리면 편해질 때도 있지.

15. 엄마는 제 성격이 침착하지 못하다고 늘 나무라시는데요 제가 보기엔 엄마도 차분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기치 않게 엄마의 결점을 발견했던 상황을 가정해서 답하시오).

- 1) 애가 못하는 말이 없네. 버릇없이!
- 2) 엄마 성격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뭐.
- 3) 그래, 엄마 성격이 좀 차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
- 4) 엄마도 침착하지 못하는데 너도 그럴까 봐 걱정이구나.
- 5) 엄마 잔소리가 무척 듣기 싫었구나. 엄마도 스스로 침착하지 못한 면을 고쳐야겠구나.

16. 엄마 난 외모 때문에 고민이에요. 엄마도 외모 때문에 고민한 적 있으세요? (어머니도 외모 때문에 고민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는 가정 하에 답하시오)

- 1) 난 너무 많이 먹어 탈이야.
- 2) 뚱뚱하건 날씬하건 그게 무슨 대수니?
- 3) 너희들 때는 누구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지.
- 4) 엄마도 학생 때 뚱뚱해서 고민을 꽤 했었어.
- 5)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았지만 뚱뚱하다는 말은 들었지.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

17. 맛있는 반찬 좀 해 주세요 요즘 도시락 반찬이 이게 뭐예요.

- 1) 이 정도면 됐지.
- 2) 애가 웬 반찬 타령이야.
- 3) 엄마가 그렇게 반찬을 못해 주었니?
- 4) 도시락 반찬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구나.
- 5) 엄마가 좀더 도시락 반찬에 신경 써 주길 바라는구나.

18. 오늘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 사귀는 일 같은 대인관계도 공부 못지 않게 중요하대요.

- 1) 딴 생각 말고 그저 공부나 열심히 해
- 2) 애야, 그런 건 대학교에 들어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 3) 선생님 말씀은 무조건 옳은 말씀이야.
- 4) 친구 사귀는 일도 공부 못지 않게 중요하단 말씀이지.
- 5)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인관계도 잘 배워야 훌륭한 사회인이 된다는 말씀이란다.

19. 가끔은 엄마에게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기가 어려워요 (고민이 있지만 웬지 어머니와 잘 통할 것 같지 않아 망설였던 상황을 가정해서 답하시오).

- 1) 다 키워 놨더니 혼자 잘났니?
- 2) 어린애는 모든 일을 엄마와 의논해야 한다.
- 3) 엄마에겐 내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기 어려운 모양이지?
- 4) 엄마에게 스스럼없이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갖고 있나 보구나.
- 5) 할 말이 있나 보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이 엄마에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